

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- 2. 주간 이슈 3
 -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주요 동향

- ◇ 美 Fed 의장, “고용시장 취약 등으로 상당기간 경기부양책 필요”
 - (BNP Paribas) “양적완화조치 종료 6개월후 금리인상”이라는 종전의 발언을 희석시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장할 여지 확보
- ◇ 러시아, 서방국가들의 제재조치로 에너지시장 재편 예상
 -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제재조치로,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할 전망
 - 반면, 천연가스 수입의 30%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EU는 즉각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, 전체 석유 사용량의 40%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전망
- ◇ ECB, 예상대로 5개월 연속 기준금리 0.25%로 동결
 - (Draghi 총재) “양적완화조치 논의가 있었으며,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될 것, 저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”
- ◇ 우크라이나, IMF와 27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예비협상 체결
 - (IMF) “국제사회로부터 27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향후 2년에 걸쳐 시행될 계획. 이중 140억 ~ 180억달러는 IMF가 지원할 계획”

주요 동향

◇ 日, 4월부터 소비세율 5% → 8%로 17년래 첫 인상

- 복지재원 조달 및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목적. 소비자들은 연간 5조엔 규모의 추가 부담 전망
-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조 5000억엔 규모 경기부양책 준비

◇ 中, 장수성 민간상업은행(서양은행)뱅크런 사태 발생

- (경과) 3월말 장수성 소재 장수 서양 상업은행 부도 소식이 확산되며 예금 인출 사태 발생
- 은행협회는 이례적으로 “장수성 서양은행의 재무상황은 좋은 상태”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, 공안은 서양은행 뱅크런에 대한 첫 루머 유포 용의자를 구금

- ◆ 박근혜 대통령의 ‘통일대박’ 발언(1.6) 이후 통일논의가 국정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드레스덴 연설(3.28)에서 제시된 대북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고자 함.

1. 드레스덴 연설의 내용과 의미

□ [연설의 주요 내용] 박근혜 대통령은 3.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선포, 향후 통일기반구축의 실천방안을 제시

-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‘장벽’ 허물기 작업의 핵심은 ①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②민생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며, ③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

⇒ 이를 실현하기 위해 ‘남북교류협력사무소’를 설치하자고 제안

- 이에 덧붙여,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중장기적 차원의 포부를 소개

① 대결에서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상징으로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

② [북한 핵포기시]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다자안보 협의체 구성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고 경제·안보 필요를 충족

※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관계 진전이 어려웠던 반면, 박근혜 정부는 핵문제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도 제시

☞ 붙임. 드레스덴 연설 주요 내용

□ [연설의 주요 의미]

- 구동독 공업도시 드레스덴의 경제성장이 통일의 혜택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북한지역에서도 성장의 기점이 될 것이라는 **희망메시지 전달**

※ 드레스덴 : 2차대전 폭격으로 폐허됐다가 재건되었으나 냉전기간 동독의 가난한 도시로 존재하다가 통일이후 첨단 공업도시로 변신

- ‘새롭고 과격적인’ 내용(예: 5·24조치 해제) 중심의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, 관계 변화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**제도화 촉구**
- 구상 속에 녹아있는 ‘제도화’ 코드는 박 대통령의 ‘프로세스’ 개념이 적극 반영된 장치이며,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

제도화 차원	제도화 (institutionalization) 방안
남북관계	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
북한 경제체제	북한의 국제기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기구 가입
동북아 지역	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다자안보협의체 구성

2. 북한의 반응과 남북관계 전망

□ [북한의 수용대가 요구] 북한이 박대통령의 의도와 의지를 평가한다면 고위 접촉을 통해 북측 wish list를 제안하는 등 남북간 치열한 흥정이 전개될 전망

- 북한이 1차 남북 고위급 접촉(2.12)에서 박 대통령의 시각*을 전해 듣고 ‘통큰 양보’(이산가족상봉 합의)를 했었다면 이번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

※ 박 대통령의 시각 : “남북관계는 사건(event)이 아니라 과정(process)이다.”

- 북한은 당분간 대남 비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제안 수용의 조건과 타이밍을 놓고 ‘밀고 당기기’를 전개할 전망

※ 노동신문(4.1일)이 개인필명의 논평 및 기사 형식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원색 비난을 쏟아냈으나 아직 북한 공식기관 명의의 코멘트가 없어 제안의 불씨 여전히 유효

□ [북한의 대미 협상 압박]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북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당분간 유화보다 강경 태세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망

- 북한은 오바마 미대통령의 방한(4.25)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, 평화협정 협상, NLL 수정 등 다양한 이슈들을 동시에 끄집어내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

<작성자 : 김중호 선임연구원>

드레스덴 연설 [한반도 평화통일 구상] 주요 내용

1. 통일 구상 방향 :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장벽 허물기

- 군사적 대결의 장벽, 불신의 장벽, 사회문화적 장벽, 단절과 고립의 장벽

2. 남북협력의 3대 의제 (Three Agendas)

①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(Agenda for Humanity)

-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, 북한 주민 위한 인도적 차원 지원 확대

② 남북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(Agenda for Co-prosperity)

- 북한내 농업+축산+산림 복합농촌단지 조성
- 한국의 북한내 인프라 건설 지원 + 북한 자원 개발
- 남북러 + 남북중 협력사업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발전

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(Agenda for Integration)

- 순수 민간 접촉 확대를 위해 역사·문화·예술·스포츠 등을 장려
- 국제협력 통해 북한에 경제관련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지원

☞ 의제 추진 방안 :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

3.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 작업 :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

- 남북간 대결 패러다임으로부터 유라시아 통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도구

4. 대북 국제사회 편입 지원의 전제 조건 : 북한 핵포기

- 비핵화시,
 - 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
 - ②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다자안보 협의체 구성 통해 북한의 경제·안보 필요를 충족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3. 28	'14. 4. 4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69.3	1,053.5	△15.8
₩/100¥	1,002.3	1,046.7	1,014.4	△32.3
¥/US\$	105.30	102.16	103.86	1.70
US\$/€	1.3736	1.3748	1.3704	△0.0044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3. 28	'14. 4. 4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7	2.89	0.02
미국 국채(10년)	3.03	2.72	2.72	-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3. 28	'14. 4. 4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81.00	1,988.09	7.09
미국 DJIA	16,576.66	16,323.06	16,412.71	89.65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3. 28	'14. 4. 4	전주비
BDI 지수*	2,247	1,373	1,205	△168
HRCI 지수**	497.5	504.9	504.1	△0.8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/ 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3. 28	'14. 4. 4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101.47	101.10	△0.37
Brent유 현물	108.34	107.36	106.64	△0.72
두바이유 현물	103.96	104.58	103.04	△1.54